

미국 양계업 진출, 알고 보면 쉬워요



▲ 차재철 사장

메릴랜드 델마바 닭농장 운영(7년간)
닭농장 전문 부동산업 운영
메릴랜드 한인회 회장
미국한인양계협회 이사

미국에서 육계업을 하면서 매릴랜드한인회장, 미국한인양계협회 이사 등을 맡고 있는 차재철 씨가 치킨맨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차재철씨는 국내외 신문을 통해 잘 알려진 인물로 '미국 양계장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강연회를 자주 갖기도 한다. 홍보를 위해 국내에도 1년에 2-3차례 방문하고 있으며, 홈페이지(chickenmen.com)를 통해 미국 양계 현실 및 취업정보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차재철 씨의 미국내 진출을 소개하고 현재 미국양계업의 현황을 알리고자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코자 한다.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로

차재철 씨가 미국생활을 한지는 10여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처음 정착한 곳은 메릴랜드였고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양계장을 매매하는 일까지 맡으면서 양계산업의 현실을 접하게 되었고, 부동산 일을 한지 3년 후 양계장을 직접 매입하면서 양계인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치킨맨' 차재철 씨는 계열화가 안정적으로 갖춰진 미국의 육계산업을 경험하면서 미국이라는 곳이 아직도 개척할 수 있는 곳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메릴랜드 주변에

서는 은퇴를 한 노령층이 쉽게 양계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주업을 하면서 양계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한국 사람들처럼 본업으로 양계에 매달린다면 100%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은퇴비즈니스로 안성맞춤

이처럼 양계장은 초보자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어 은퇴 비즈니스로도 안성맞춤이라고 한다. 짧은 시간을 투자해도 될 뿐 아니라 오랜 경험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차재철 씨의 설명이다. 또한, 농장간의 경쟁이나 언어적 장벽이 높지 않고 고객의 입장이 아닌 농장주의 스케줄에 따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양계장 사업의 큰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합병 체류자의 경우 영주권자의 보증을 받는다면 농장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양계장의 큰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도계장, 농장, 은행이 함께 맞물려 움직인다고 한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농협과 같은 농장신용은행(Farm Credit Bank)이 축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용을 담보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에 부담이 적다고 한다. 즉, 육계를 시작하려면 도계장과 은행에서 70% 이상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30% 정도만 있으면, 신용과 투자적 가치를 평가받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언급을 해 준다.

현재 메릴랜드에는 2천여 농가들이 육계업을 하고 있으며, 한인들도 5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여 농가만 참여한다면 계열화를 이끌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시설과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은 환경 및 생태 보존을 위해 법이 엄격하지만 습지 등 환경보존

지역을 제외하고는 계사를 신축하고 양계를 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따른다고 한다.

차재철 씨는 이스라엘, 일본, 중국 등에서는 정부에서 외국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 외국농업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축산업계 대기업진출' 보다는 외국으로 눈을 돌려 투자를 해 주는 것도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양계업 성장 지속

차재철씨에 따르면 미국의 육계시설은 50%가 무창계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통 한사람이 40만수를 관리하고 있고, 7주간 2.3kg정도를 키워 출하하는데, 계열사에서 농가 사양관리를 주기적으로 지도해 주고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1년 회전수는 평균 5회전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2주 겨울에는 3-4주 정도의 휴지기를 두고 생산한다고 한다.

미국은 백색육인 닭고기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고기 소비량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현재 닭고기 소비량은 1년에 1인당 39kg으로 소고기(30kg), 돼지고기(22kg), 어류 등 기타(7kg)을 크게 앞서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차재철 씨는 향후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양계장이 많은 조지아주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조지아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닭농장 수가 많은 곳"이라며 "보통 한인이 많은 곳엔 닭농장이 없고, 닭농장이 많은 곳엔 한인인 많지 않는데, 조지아주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 사업을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인들이 미국 양계업 진출을 통해 한국인들의 저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계**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